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즌5 제5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9] 사회-기술 통합

의사 결정을 위한 방식과 k-NN 알고리즘

지문 평가

(가)에서는 국가 간 연합체에서 적용되는 의사 결정 방법을 다루고 있고 (나)에서는 데이터의 분류 기법을 다루고 있다. 이 둘을 완전히 별개의 글로 읽었다면 곤란하다. '다수결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 둘 사이에 어떤 긴밀한 연결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한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정치학 – 다수결제

(가) 전원 합의제, 과반수제, 가중 다수결제, 부결 조건, 이중 다수결제

기술 – 컴퓨터 과학 – k-NN 알고리즘

(나) k-NN 알고리즘, 참조 데이터, 데이터 벡터, 특성값, k값, 검증 점, 잡음 데이터, 과대 적합, 과소 적합, 편향성, 역 k-NN 방법

(가)문단 1 전원 합의제와 과반수제

1) 국가 간 연합체에서는 의사 결정을 위해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표결 방식인 **전원 합의제**를 채택하곤 한다.

➡ '전원 합의제'에서는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의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전원 동의가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2) 이 방식은 의안 통과 시 모두를 만족하게 하지만, ……

➡ 모두가 동의해서 통과됐으니 당연히 모두가 만족하겠지만……

3) …… 그러한 의안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서 새 의안이 통과되는 상태보다 그렇지 않은 현재 상태가 대체로 우위를 점하는 문제를 낳는다.

➡ 그렇겠다. 전원이 동의할 법한 의안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

4) 또한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

➡ 전원 합의제의 맹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한 국가만 반대를 해도 의안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5) 이와 달리 절반 이상이 찬성한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인 **과반수제**를 채택하면, ……

➡ 반면 '과반수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기만 하면 된다.

6) …… 의사 결정이 잘 이루어지지만 ……

➡ 모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니 전원 합의제보다 의사 결정은 잘 이루어지겠다. 일부 국가의 전략적인 반대도 소용이 없고, 새 의안이 더 잘 통과될 수 있겠다만……

7) …… 거의 반수에 가까운 반대에도 통과될 수 있어서 소수파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 찬성이 51이고 반대가 49여도 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전원 합의체에서는 단 한 명의 반대에 의해 의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문제였다면, 과반수제에서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반대가 묵살되어서 문제인 셈이다. 어느 경우든 단점이 있나 보다.

	전원 합의제	과반수제
장점	• 통과된 의안에 모두 만족	• 의사 결정 수월함
단점	• 새 의안 통과 어려움 • 현재 상태가 우위 • 전략적 반대 발생	• 소수파의 이익 침해

(가)문단 2 가중 다수결제

1) 아울러 국제 사회에서는 상황에 따라 1국 1표의 표결 방식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인구나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등의 격차가 분명함에도 1국 1표의 표결을 하면 상대적으로 소국의 입장이 과대 반영된다는 것이다.

➡ 국가마다 규모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령 인구가 1만 명인 국가와 100명인 국가가 동일하게 1표씩 행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국의 입장이 과대하게 반영된다고 볼 법하다.

2) 그래서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여 표를 할당한 후 찬성 혹은 반대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할당된 표만큼 행사하도록 하되, 과반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가중 다수결제**가 도입되기도 한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가중 다수결제이다.

가중 다수결제

①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여 표를 할당한다.
② 찬성/반대 중 하나로 할당된 표만큼 의견을 행사한다.
③ 과반보다 높은 가결 기준을 정한다.

➡ 가중 다수결제는 국가별 차이를 반영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1)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겠다.

➡ 더 나아가 과반보다 높은 가결 기준을 정한다는 점도 주목하자. 이는 과반수제와 비교될 만한 지점이다. 가결 기준을 더 높게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파의 이익이 덜 침해받는다. 가령 총 100표 중 찬성이 51표일 때는 과반수제의 경우 의안이 가결되겠지만, 가결 기준을 65로 정한 가중 다수결제의 경우 의안이 가결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가)문단 3 유럽 연합의 사례 - 가중 다수결제

1) 예컨대 전원 합의제의 한계를 경험하던 유럽 연합의 각료 이사회가 1987년에 가중 다수결제를 채택한 바 있다. 회원국이 늘면서 전체 표의 개수와 표 할당, 가결 기준 등이 바뀌어 왔는데, ……

➡ 전원 합의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가중 다수결을 채택한 유럽 연합의 사례이다.

2) …… 2010년 이후에는 28개국에 352표를 할당하고 260표 이상을 얻어야 가결되는 방식이었다. 다만 찬성국 수가 회원국 수의 과반에 못 미치면 의안이 부결된다는 별도의 **부결 조건**이 있었다.

유럽 연합의 가중 다수결제

① 28개국에 352표 할당
② 260표 이상 얻어야 가결[→ 약 74%가 찬성해야 가결]
③ 부결 조건 : 찬성국 수가 회원국 수의 과반[→ 28개국 기준 15개국]에 못 미치면 의안 부결

➡ '부결 조건'은 새로운 내용이다. 14개 국가[→ 28개국 기준]가 반대하면 부결 조건으로 인해서 해당 의안은 통과될 수 없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 이러한 부결 조건으로 가중 다수결제는 소수의 대국과 다수의 소국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주목** 이러한 '부결 조건'은 국가별로 표를 달리 배정하였을 때, 표를 많이 할당받은 소수의 대국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겠다[→ 다수의 소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겠다.].

➡ 물론 대국을 위한 배려도 존재한다.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는 만큼, 소수의 대국 각각은 더 많은 표를 배분받기 때문이다.

4) 다만 많은 표를 할당받은 일부 대국들이 함께 기권하여 260표 이상 얻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곤 하였다.

➡ 전체 352표에서 93표가 기권하면 의안은 통과될 수 없다. 따라서 25~30표를 할당 받은 4개국이 기권해 버리면 의안은 통과될 수 없다.

➡ 물론 마찬가지로 적은 표를 할당받은 소국들이 14개 이상의 국가가 함께 기권하여 '부결 조건'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소국이든 대국이든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주목**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는 사례'라는 지문의 표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대국은 소국에게 유리한 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소국은 대국에게 유리한 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느라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을 것 같다.

(가)문단 4 유럽 연합의 사례 - 이중 다수결제

1) 유럽 연합의 각료 이사회는 논란 끝에 2014년부터 가중 다수결제 대신 1국 1표를 근간으로 하는 **이중 다수결제**를 의안의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택하여, 2017년부터 전면 도입하였다.

➡ 문단3-4)와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이중 다수결제를 도입하게 된다. 소수의 대국들이 많은 표를 이용해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겠다.

➡ 그러나 1국 1표는 이미 문단2-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국의 입장이 과대 반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겠다.

2) 이는 회원국 중 55%, 즉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서[→ 가중 다수결제의 부결 조건과 유사하다. 이는 곧 다수의 소국을 위한 조건이다.], 동시에 찬성국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면 가결하는 방식[→ 반대로 소수의 대국을 위한 조건이다.]인데, 이 역시 여러 장단점을 안고 있는 표결 방식이다.

유럽 연합의 이중 다수결제

① 1국 1표
② 15개국 이상[→ 회원국 중 55% 이상] 찬성
③ 찬성국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 이상
⇨ ②, ③을 모두 충족해야 가결

➡ 이중 다수결제 역시 마찬가지로 다수의 소국을 위한 ②번 조건이 있고, 소수의 대국을 위한 ③번 조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다.

참고 ③번 조건에 따라 한 국가의 인구가 유럽 연합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된다면 그 나라 혼자서 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독일인데, 실제로 유럽 연합 회원국이 25개국이었을 때 독일의 인구는 유럽 연합 회원국 전체 인구의 38% 차지했었다. 즉 독일이 단독 행위로도 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었던 거다.

유럽 연합의 표결 방식 변화

1987년 이전	• 전원 합의제 ⇨ 모두를 만족하는 의안 찾기 어려움 [→ 현재 상태가 우위를 점함] ⇨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반대 가능
1987년~	• 가중 다수결제 채택 ⇨ 2010년 기준, 28개국 352표 할당, 260표 이상 가결 + 부결 조건 : 찬성국 수가 전체의 과반에 못 미치면 의안이 부결됨 ⇨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한계
2014년~	• 이중 다수결제 순차적으로 채택 ⇨ 2017년 전면 도입 ⇨ 1국 1표, 회원국 55% 이상 찬성, 찬성국의 인구가 전체의 65% 이상일 때 가결 ⇨ '가중 다수결제'와 비슷한 한계 존재함

➡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모든 걸 충족시키는 완전무결한 표결 방식은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나)문단 1 k-NN 알고리즘의 개념

1) **k-NN 알고리즘**은 사전에 정한 수많은 참조 데이터들을 근거로 다수결의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컴퓨터가 분류하는 방법이다.

➡ k-NN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먼저 참조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다수결의 원리[→ (가) 지문을 떠올려야겠다.]에 따라 과반수에 해당하는 범주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이겠다.

➡ 〈보기〉의 표를 활용하면서 내용을 따라가 보자. 〈보기 1〉의 표는 k-NN 알고리즘을 통해 금속 1~10의 데이터를 범주 X와 Y 둘 중 하나로 분류한 것이다. 그중 분류법 ㉮를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때 다수결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걸까?

금속	1	2	3	4	5	6	7	8	9	10
범주	Y	Y	Y	Y	Y	Y	Y	Y	Y	X

2)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분류의 정답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인 **참조 데이터**들의 데이터 벡터가 필요하다.

➡ 참조 데이터는 이미 범주[→ X, Y 중 하나]가 정해진 데이터를 가리킨다. 그리고 '데이터 벡터'란……

3) **데이터 벡터**는 데이터의 특성을 표현하는 여러 차원의 값을 가지는 다차원 공간의 점을 뜻한다. 2차원 벡터는 (x, y)의 두 **특성값**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령 과일 데이터는 당도와 아삭함의 값으로 벡터를 만들 수 있다.

➡ 예시를 통해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중요한 건……

4) k-NN 알고리즘은 2차원 평면상에서 두 2차원 벡터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데이터라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

➡ k-NN 알고리즘은 2차원 벡터를 활용한다. 가령 모든 과일 데이터의 벡터를 2차원 공간에 표현한다고 하자. 사과의 벡터가 (9, 10)이고 배의 벡터가 (10, 10)일 때, 이 두 벡터를 2차원 평면에 점으로 찍는다면 그 거리가 가까울 텐데, 이렇게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특성값에서도 차이가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보기 2〉의 표를 함께 보자. 분류하려는 새로운 데이터를 '금속 M'이라 했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을 때 '거리'는 해당 금속과 금속 M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즉 금속 M은 거리가 먼 금속 1보다 거리가 가까운 금속 10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금속	1	2	3	4	5	6	7	8	9	10
거리	39	32	30	28	27	23	21	15	1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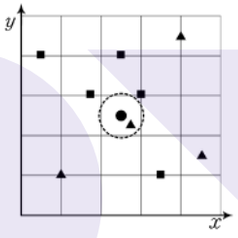
(나)문단 2 k-NN 알고리즘의 원리와 구체적 사례

1) k-NN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상수인 **k값**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분류해야 할 새 데이터의 데이터 벡터인 **'검증 점'**과 거리가 가까운 k개의 참조 데이터 벡터들을 추리고 그것들이 속한 범주들 중 가장 수가 많은 범주로 '검증 점'을 분류하는 것이다.

➡ k-NN 알고리즘에서 상수 k값은 사용자가 정한다. 상수 k값에 따라 '검증 점'의 분류를 위해 활용될 벡터의 수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k값이 1이면 검증 점과 가장 가까운 참조 데이터 벡터 1개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2) 세모와 네모 중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야 하고, 참조 데이터 벡터들이 그림처럼 2차원 평면상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자. k값이 1이면 '검증 점'인 동그라미는 점선 안쪽의 이웃한 세모로 인해 세모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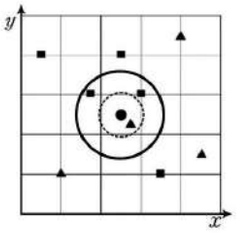
➡ 지문에 주어진 그래프를 보자. k값이 1이면 제일 가까운 벡터 1개만 추려진다. 따라서 지문의 그래프에서는 '검증 점'이 세모로 분류된다.



3) 그런데 k값이 3이면 네모 2개, 세모 1개이므로 다수결에 의해 네모로 분류된다.

➡ 그런데 k값이 3이면 결과가 달라진다.

❗ **주목** 결국 k-NN 알고리즘은 가장 유사한 k개의 벡터만을 활용하여 '다수결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가)와 함께 이해하여, '과반수제'를 떠올렸다면 훌륭하다. 다만 이번에는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가)의 문단1-5)]이 없다. 그냥 더 많은 쪽으로[→ 다수결에 따라] 분류될 뿐이다.



(나)문단 3 k값 설정의 문제 - 과대 적합과 과소 적합

1) k값을 아주 작게 하면 인접한 점 하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혹시라도 인접한 점이 정답이 아닌 **잡음 데이터**인 경우에 '검증 점'도 잘못 분류된다. 이렇게 적은 수의 데이터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을 **과대 적합**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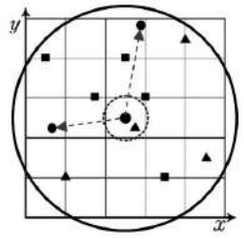
➡ 가령 k값이 1일 때 가까이에 있는 벡터가 정답이 아닌[→ 잘못 분류된] 잡음 데이터라면 검증 점도 잘못 분류된다. 모든 참조 데이터가 잘 분류되어 있다면[→ 잡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도 없겠으나, 잡음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겠다.

➡ 한마디로 k값이 너무 작으면, k개의 데이터 중에 존재하는 잡음 데이터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로 인한 문제를 '과대 적합'이라 한다.

2) 반면 참조 데이터 수 대비 k값을 너무 크게 하면 **과소 적합**이 발생한다. 예컨대 참조 데이터가 100개일 때 k값이 100이면 개별 데이터의 특성이 무시되어 모든 '검증 점'이 동일하게 분류된다.

➡ 반대로 k값이 너무 크면 '과소 적합'이 발생한다.

➡ 가령 k값이 9라면 '검증 점'은 어디에 놓이든[→ 다음의 예시처럼 맨 위로 이동하든, 왼쪽으로 이동하든] '네모'로 분류될 거다. 참조 데이터 중 5개는 네모, 4개는 세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단1-4)에서 중요한 전제로 삼은 '거리'가 완전히 무시된다.



3) k값이 커질수록 잡음 데이터의 영향은 줄지만[→ '과소 접합'에서는 멀어지지만], 데이터의 특성이 무시되면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보여 주는 '거리'가 무시되면서] 잘못 분류되는 것이 많아져서 ……

➡ 여기까지는 그대로 잘 이해하면 되겠다.

4) …… 2차원 평면상에서 범주 간 경계를 명확히 긋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 이건 좀 새로운 내용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두 벡터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특성의 데이터로 간주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이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분류될수록 같은 범주의 벡터들끼리 2차원 공간에서 밀집되어 분포할 테고, 따라서 범주 간의 경계도 잘 그을 수 있을 거다.

5) 그래서 두 상황을 모두 회피하는[→ 과대 적합도, 과소 적합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k값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대 적합과 과소 적합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k값을 잘 정해야겠다.

(나)문단 4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 k-NN 방법

1) 그런데 참조 데이터들이 한 범주에만 다수 분포되어 있는 등 **편향성**이 보일 때에는 다수결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다. '검증 점'의 특성이 무시되면서 해당 범주로만 분류가 치우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 만약 참조 데이터들이 한 범주에만 다수 분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으로 참조 데이터 9개 중에 네모만 8개가 있다면, 검증 점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네모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다.

맥락 짚기 이는 (가)에서 소수파의 이익이 침해되는 과반수제 방식의 한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2) 이를 해결하는 **'역 k-NN 방법'**은 k개의 이웃이 각 1표씩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점에 더 큰 힘을 실어 주는 방법이다.

❗ **주목** 이는 가까운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가)에서 과반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가중 다수결제'와 매우 유사한 방법이다.

3) 이는 거리의 역수인 (1/거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는 점을 활용한다. 거리를 기준으로 k개의 이웃을 고르되, 이웃을 범주별로 나눠서 (1/거리)의 값들을 모두 합한 점수를 구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점수가 큰 쪽으로 분류하면 다수결로 인한 편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의 역수는 커진다. 다시 〈보기〉의 표를 참고해 보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자. 검증 점과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금속 10은 거리의 역수가 0.20로 제일 크다.

금속	1	2	3	4	5	6	7	8	9	10
범주	Y	Y	Y	Y	Y	Y	Y	Y	Y	X
거리	39	32	30	28	27	23	21	15	11	5
$\frac{1}{\text{거리}}$	0.03	0.03	0.03	0.04	0.04	0.04	0.05	0.07	0.09	0.20

➡ 대부분의 데이터가 Y로 분류되어 있다면 '편향 문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검증 점의 특성과 무관하게 Y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다.

➡ 만약에 k값이 30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편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거다.

금속	8	9	10
범주	**Y**	**Y**	**X**
거리	15	11	5

K-NN 알고리즘 ⇨ Y로 분류

금속	8	9	10
범주	Y	Y	X
거리	15	11	5
$\frac{1}{\text{거리}}$	0.07	0.09	0.20
합	**0.16**		**0.20**

역 k-NN 방법 ⇨ X로 분류

[10~13] 예술

알베르티의 선 원근법

지문 평가

알베르티가 '가상의 사각형 평면'을 통해 무엇을 재현하고자 하였는지를 끊임없이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는 제대로 상상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회화론 – 알베르티

알베르티, 선 원근법, 중심점, 가상 시점, 리드, 가장자리 왜곡, 엔타시스 기둥 양식, 곰브리치

문단 1 선 원근법의 목적

중세 시대의 몰락 이후 회화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사실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중시되어 왔다. 이를 위해 르네상스 시대의 **알베르티**는 눈으로 본 그대로를 평면에 옮기는 수학적 작도법으로 평면에 공간적 깊이를 표현하는 **선 원근법**을 고안하였다.

➡ '선 원근법'은 눈으로 본 그대로를 평면에 옮기는 기법이다. 이때 '눈으로 본 그대로'란 공간적 깊이를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선 원근법의 목적은 '사실성'의 확보에 있다.

문단 2 알베르티의 회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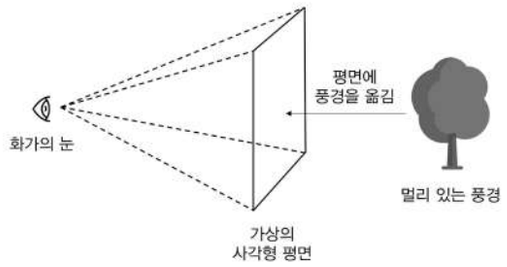
1) 눈에서 방출된 빛으로 대상을 감지한다는 당시의 인식에 따라, ……

➡ 오늘날의 상식과는 충돌하는 설명이다. 낯선 설명일수록 의식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고 상상하면서 읽어 나가자.

2) …… 알베르티는 화가의 눈과 멀리 있는 풍경의 사이에 가상의 사각형 평면을 설정하고 눈에서 방출된 빛을 기준으로 해당 평면에 풍경을 옮기는 작도법을 사용하였다.

❗ **주목** 지금부터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지문의 〈그림〉을 적극 활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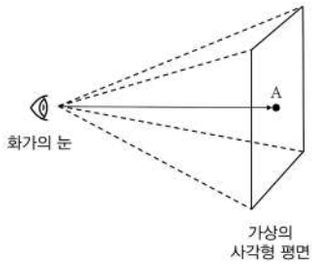
➡ '화가의 눈'과 '멀리 있는 풍경' 사이에 '가상의 사각형 평면'이 놓이는 거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먼저 떠올려야겠다.



3) 그의 작도법을 담은 〈그림〉처럼, 알베르티는 화가의 눈과 가장 가까운 평면 위의 점인 **'중심점'** A로부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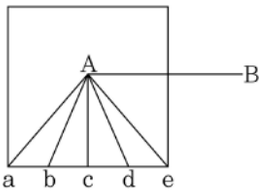
➡ '중심점'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해지겠다. 화가의 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이기 위해서는 평면 위에서 화가의 눈과 같은 높이에 놓여야 할 거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 …… 사각형 하단을 균등하게 분할한 점 a~e에 각각 선을 그었다. 이후 A로부터 우측으로 사각형 바깥의 **'가상 시점'**인 B까지 하단과 수평하게 선[→ 선분 AB]을 긋되, ……

➡ '가상 시점'은 왜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르겠다만, 어쨌든 지문의 〈그림〉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상상하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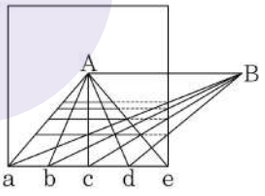


5) …… 사각형의 우측 변부터 B까지의 거리는 화가의 눈과 A까지의 거리인 시선 거리와 같도록 하였다.

➡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도, 그러하다는 사실만 챙기고 넘어가자.

6) B에서 a~d로 그은 선이 사각형의 우측 변과 만나는데, 그 점들을 높이로 하여 하단과 수평한 선들을 그으면 A의 아래쪽에 간격이 다른 수평선들이 그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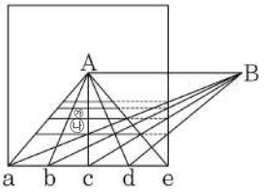
➡ 드디어 지문의 〈그림〉이 완성됐다.



〈그림〉

❗ **주목** 특이한 점은 이때 그어지는 수평선들 간의 간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이 지점이 '선 원근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핵심 지점이 될 것 같다.

7) 이에 기초하여 풍경을 그리면 A에 가까울수록[→ 멀리 있는 풍경일수록] 평면에 그려지는 사물이 작아져서[→ 수평선 간의 간격이 좁아져서] 회화의 사실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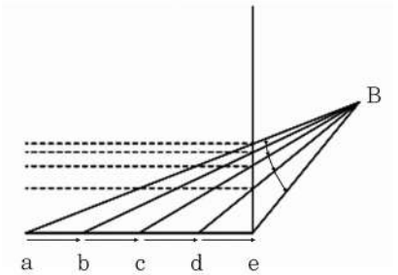


➡ 상상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풍경에 해당하는 어떤 사물이[→ 물론 이 사물들의 실제 크기는 일정하다.] ㉮에 놓일 때에는 ㉯에 놓일 때보다 작게 묘사된다는 얘기다.

8) 이는 실제 가장 먼 풍경까지 일정한 거리만큼씩 여럿으로 분할하고, 화가의 시선이 근경을 향해 하단으로 이동하며 분할 지점을 볼 때마다 시선이 하강하는 각도가 일정하게 커진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만든 방법이다.

➡ 지문의 설명만으로는 그 원리를 온전히 파악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런 경우에는 결론만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 혹은……

➡ 이렇게 그 원리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 처음부터 제대로 상상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림〉에서 사각형의 우측 변을 강조하여 그리면 다음과 같다.



➡ '가상 시점'인 B에서 사각형의 밑변을 바라본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a는 가장 먼 풍경을 의미할 거다. 그렇다면 일정한 거리만큼씩 이동했을 때 b, c, d, e를 분할 지점으로 삼게 된다. B로부터 각각의 분할 지점을 바라본다고 가정하자. 이때 시선이 하강하는 각도는 조금씩 커진다. 그로 인해 사각형의 우측 변과 교차하는 지점은 점점 더 많이 내려가게 된다. 즉 관찰자가 사각형 평면 앞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방식을 작도법으로 나타내기 위해 가상 시점을 끌어들인 것이다.

❗ **주목** 이는 곧 실제의 풍경[→ a~e]이 평면[→ 가상의 사각형 평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즉 실제의 풍경이 우리의 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겠다.

문단 3 선 원근법에 대한 비판

1) 이러한 엄격한 작도법 덕에 선 원근법은 인간의 시각과 외부 세계를 회화 평면에서 통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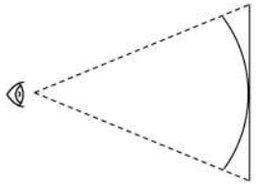
➡ 문단2-8)의 결론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평가겠다. 다만……

2) 그런데 선 원근법은 당시부터 인간의 시각 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미술 평론가 **리드**에 따르면, 인간은 망막의 굽은 면에 맺힌 상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므로 인간의 시야는 미세한 곡면이다.

➡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얘기다. 어떤 비판인지 알겠다. 인간의 망막은 분명 '곡면'인데 문단2와 같이 '평면'[→ '가상의 사각형 평면']에 풍경을 표현한다면, 그건 부정확하다는 거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3) 그런데 선 원근법처럼 이를 평면으로 간주하면, 곡면을 평면에 투사한 상태가 되어 시야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는 **가장자리 왜곡**이 발생한다. 실제로 곡면 위의 상을 평면에 투사한다고 했을 때 시야를 어떤 방향에 두고 그 상을 투사하는지에 따라 평면에서 그 상의 길이가 달라진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하면 되겠다. '곡면'을 '평면'에 투사하려고 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다.



4) 이런 이유로 비판자들은 고대의 **엔타시스 기둥 양식**이 선 원근법보다도 더욱 인간의 시각 체계에 부합하는 예술적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엔타시스 기둥은 기둥의 횡단면 지름이 기둥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비해 중간 부분에서 더 크게 제작되었으나[→ 곡면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을 띠지만]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시야도 곡면이기 때문에] 횡단면의 지름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 쉽게 말해서 인간의 시야가 '곡면'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곡면'인 기둥은 일직선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인간의 시야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미세한 곡면이다. 그러므로 기둥의 볼록한 가운데 부분은 인간의 시야에서 볼록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마디로 '리드'의 비판은 이런 식이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으면 평면이 아니라 곡면에 했어야지!"

문단 4 곰브리치의 견해

1) 한편 곰브리치는 조금의 왜곡이 있음에도[→ 곡면을 평면에 재현하여 발생하는 왜곡이 있음에도] 선 원근법이 인간의 경험적 기대에 잘 부합한다고 보았다.

➡ 문단3의 '리드'는 '선 원근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면 '곰브리치'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단다. '인간의 경험적 기대에 잘 부합'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2) 인간은 고정된 위치에서 본 이미지만으로 사물을 인지하기보다 고개를 돌려 측면을 보거나 몸을 움직여 가면서 연속되는 순간의 경험들로 외관을 인지하므로, 오히려 수학적 작도법으로 일관성 있는 구조를 잘 드러내는 회화가 경험에 더 잘 부응한다는 것이다.

➡ 인간이 실제로 풍경을 바라볼 때에는 결코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끊임없이 시선의 방향을 바꿔 가면서 풍경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3-3)에서 말한 '시야의 중심'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끊임없이 시선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 시선의 '중심'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오직 한 지점에서 바라본 곡면 시야만으로 세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다.

❗ **주목** 따라서 '가장자리 왜곡' 역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고, '선 원근법'은 오히려 인간의 경험적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이 된다.

3) 그에 따르면 회화는 현실의 모사가 아니라 현실을 대신하는 환영(幻影)을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곡면 이미지에 충실해지도록 회화의 가장자리를 오므라지게 그릴[→ '리드'가 주장하는 올바른 회화적 재현 방법] 필요가 없다.

➡ 한마디로 '곰브리치'의 주장은 이런 식이다. "가장자리 왜곡은 시선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만 문제가 돼. 하지만 인간이 실제로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 따라서 '선 원근법'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야."

[14~17] 인문

이익의 사단 칠정론

지문 평가

이황이 이해한 인간의 본성과 감정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이익의 인간의 본성과 감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관점을 예리하게 비교해야 글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해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문이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이기론 – 사단 칠정론

성리학, 사단, 칠정, 성리학자, 이, 기, 이황, 기대승, 이익, 공칠정, 사단 칠정론, 본연지성, 기질지성, 형기

문단 1 성리학에서의 사단 칠정 논쟁

1) 성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구분된다. 도덕적 감정인 **사단**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며, 사사로운 감정인 **칠정**은 기쁨, 슬픔, 두려움, 사랑함, 싫어함, 노여움, 욕망함이다.

➡ 성리학에서 감정은 공적인 것[→ 도덕적인 것, 사단]과 개인적인 것[→ 칠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이 도대체 왜 필요했느냐 하면……

2) 도덕 정치를 강조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행위의 동기가 되는 감정이 어디에서 발(發)한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여 왔다.

➡ 행위는 감정[→ 사단, 칠정]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그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단 말인가? 조선의 성리학자들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다.

➡ 한 단계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자면,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도덕 정치를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의 관심사는 '도덕적 행위가 정확히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 내는 방법도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3) 사단은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인 **'이(理)'**에서 발한 것이고 칠정은 물질적 요소인 **'기(氣)'**에서 발한 것이라고 보는 **이황**과,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에서 발한 것이라고 보는 **기대승** 간의 논쟁이 대표적이다.

➡ 차이점에 주목하자. 칠정[→ 사사로운 감정]이 '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에는 이황과 기대승 모두 동의한다. 다만……

➡ 사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의 감정		
	이황	기대승
사단	'이'에서 발함	'기'에서 발함
칠정	'기'에서 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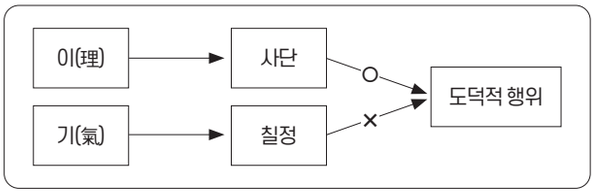
4) 이러한 논쟁은 도덕적 행위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견해 차이로 이어졌는데, ……

➡ 2)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던 대목이다.

5) …… 조선 후기에 **이익**은 이황의 입장을 계승하면서도 사단만 강조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이황'은 왜 사단만을 강조했을까? 당연히 도덕적 감정인 사단만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다.



맥락 짚기 이러한 '이황'의 입장과 '이익'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하자. 즉 이황의 견해를 어디까지 계승하고[→ 공통점], 어디서부터는 계승하지 않았는지[→ 차이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6) …… 칠정도 공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며 공적인 칠정인 **'공칠정(公七情)'**을 강조하여 **사단 칠정론**에서의 실천적 의미를 더 부각하였다.

➡ 이익도 사단은 '이'에서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 것이라는 이황의 관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 기에서 발한 칠정도 사단처럼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된 개념이 바로 '공칠정'이다.

맥락 짚기 앞으로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익의 사단 칠정론을 이황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칠정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지를 '공칠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해야겠다.

문단 2 이황과 이익의 관점 차이

1) **이황**은 인간의 본성을, 모든 사람이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선(善)한 본성인 **본연지성(本然之性)**과 물질의 영향을 받는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구분하였다.

맥락 짚기 초점이 '감정'에서 '본성'으로 이동했다. 본성과 감정 사이의 관계가 무엇일지를 의식하면서 읽어 나가야겠다.

➡ 이황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본연지성'은 선하다. 하지만 '기질지성'에 대해서는 선하다는 설명도, 악하다는 설명도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읽어 봐야겠다.

2) 이와 달리 **이익**은 인간에 실재하는 본성은 '이'와 '기'의 합인 기질지성뿐이며,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에서 '이'만 가리켜 말한 것으로 별도로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반면 이익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하지 않았다. 본연지성[→ '이']은 기질지성[→ '이' + '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

인간의 본성		
이황		이익
본연지성	기질지성	기질지성
선천적인 선(善)한 본성	물질의 영향을 받는 본성	'이'[→ 본연지성] + '기'

➡ 이익의 설명을 고려할 때 이황의 주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 사단은 본연지성[→ '이']에서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질지성[→ '기']에서 발한 것이다. 즉 이황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본성이라고 본 거다.

3) 그래서 이익은 이황과 달리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가 응한 것이지만, ……

➡ 여기서 '이'가 응한 것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분명 기질지성 안에 '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텐데……

4) …… 사단은 외부 사물을 느낄 때 '이'가 곧바로 응한 것이고, 칠정은 외부 사물이 신체의 '기'인 **'형기'**를 촉발시켜서 형기가 매개될 때에 '이'가 응한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육체의 아픔인 형기의 매개에 '이'가 응하여 드러난 노여움이 곧 칠정 중의 하나인 것이다.

➡ 이제야 알겠다. 가령 무언가에 내 팔이 부딪히면[→ 외부 사물, 외부의 자극] 먼저 육체의 아픔[→ 형기]이 일어난다. 그러고 나서 '이'가 응하여 노여움[→ 칠정]이 느껴지는 거다.

5) 그래서 그는 '기'가 주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에 앞서서 형기[→ 신체의 '기']가 매개되었다는 의미에서 칠정이 '기'에서 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 이황은 '기'가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칠정을 기발로 보았다. 반면 이익은 칠정이 기발임에 동의하면서도, 칠정에는 '기'뿐만 아니라 '이'도 개입한다고 보았다.

주목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인 '이'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칠정도 도덕적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		
	이황	이익
사단	이발	이발
칠정	'기'가 주도한 기발	'형기'의 매개에 '이'가 응하는 기발

➡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익이 칠정을 '기발'이 아니라 '이발'로 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며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은 어디까지나 칠정을 '기발'로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외부 사물에 형기가 매개될 때 '이'가 응하여 감정[→ 칠정]이 발생하므로 칠정은 어디까지나 '기발'인 것이다.

문단 3 이익의 관점에 따른 도덕적 행위의 동기

1) **이황**의 관점에 따르면 사단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되며 칠정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악행의 동기가 되므로 인간은 사단을 확충하고 칠정을 제어하기 위해 수양해야 한다.

맥락 짚기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감정이 발하고, 그 감정으로부터 행위가 나온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거다.

➡ 이황에 따르면 사단[→ 본연지성, '이']과 칠정[→ 기질지성, '기']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칠정은 오직 억제의 대상이다. 악행으로 이어질 뿐, 도덕적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2) **이익**은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에 동의하면서도, 칠정 역시 형기가 매개된다는 점에서 '이발'인 것이 아니라 '기발'인 것이지만 결국 '이'가 응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 이익 또한 수양을 통해 사단을 확충하고, 칠정을 제어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어디까지나 사단은 '이'가 곧바로 응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목 이익에 따르면 칠정 역시 분명 '이'가 응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칠정이 마냥 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다.

3) 칠정은 배우지 않아도 발하는 사적인 감정이므로 칠정만을 따라 행하다 보면 인간의 행위는 결국 악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으나, ……

➡ 물론 형기가 매개되는 만큼 통제되지 않은 칠정은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도덕적 행위로 이어지는 사단과는 분명히 다르다.

4) …… 성인(聖人)이 그러하듯 사단으로 칠정의 발현이 제어되면 칠정도 공적인 감정으로서 선하게 발현되어 **'공칠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황은 칠정이 아예 '제어'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악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아예 통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익의 생각은 다르다. 적절한 수준에서 칠정의 '발현이 제어'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이'가 개입하는 만큼 도덕적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칠정']는 얘기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5) 성인이든 범인이든 누구나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입지 않으면 춥다. 이러한 형기에서 발한 노여움이나 슬픔 같은 칠정은 사사로운 것인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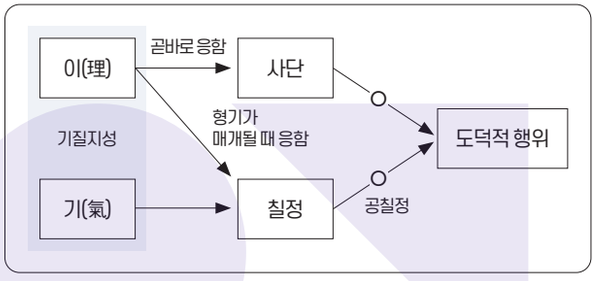
➡ 배고픔과 추위는 '형기의 매개'에 대응된다. 인간은 배고픔과 추위라는 감각을 느낀 후에야[→ 형기의 매개를 거친 뒤에] 노여움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이때 느끼는 노여움이나 슬픔은 분명 나 자신과만 관련된[→ 사사로운] 칠정이다.

6) …… 성인의 칠정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단처럼 공적인 것으로 발현된다. 다른 사람이 배고프고 추운 것에 눈을 돌려 이를 노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 그러나 성인의 칠정은 다르다. 성인은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감정도 내 것처럼 느낀다[→ 공적인 것으로 발현된다.]. 타인이 느끼는 배고픔과 추위에 대해서도 노여움과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7) 이익에 따르면 성인은 욕망해야 마땅한 대상을 욕망하고 미워해야 마땅한 대상을 미워한다. 그래서 칠정도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주목** 결국 이익의 결론은 여기에 있다. 칠정은 본연지성에 대응하는 '이'가 응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칠정이 공적인 것으로 발현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면 칠정도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다.



문단 4 이익의 '공칠정'

1) 이익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이'가 형기와 무관하게 직접 발한 감정인 사단과 '이'가 형기의 매개에 의해 발한 감정인 칠정의 구분이 있으며, ……

➡ 문단2에서 알 수 있듯이 '이'가 응할 때 형기의 매개 여부에 따라 사단과 칠정이 구분된다. 즉 칠정은 사단과 마찬가지로 '이'가 개입하지만 그것이 형기의 매개에 의하기 때문에[→ 먼저 '기'에서 발하기 때문에] '기발'인 거다.

2) ……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인 감정과 사적인 감정[→ 사사로운 칠정]의 구분이 있다. 여기서 공적인 감정에는 사단과 '공칠정'이 포함된다. 물론 원리적 측면에서는 발생적 구분인 전자의 구분[→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더 중요하지만 실천적 측면에서는 후자의 구분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도덕적 행위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관해 답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구분하고 탐구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기도 하다.

➡ 이에 대해 이익은 사단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즉 타인의 배고픔과 추위에 대해서 노여움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따라서 도덕적 행위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칠정'을 제시한 거다.

3)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수양을 통해 사단을 확충하고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관계 맺고 배우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적인 칠정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감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의 논의를 귀결 짓는 무난한 마무리다.

[23~26] 고전시가

(나) 「산민육가」 이홍유

작품 평가

이 작품은 거의 평생을 관직과 무관하게 살았던 작가가 자연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삶을 노래한 것이다. 작가는 28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뒤 57세에야 비로소 벼슬에 오르지만, 모친상으로 불과 서너 달 만에 그만두어야 했고 그 뒤로 다시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 작품은 이 무렵에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작가의 은거가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 이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세상에 대한 불평 의식이 엿보이기도 한다.

제 1수

이 몸이 한가하여 산수간(山水間)에 절로 늙어[→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 자연 속에서 분수에 맞게, 순리대로 늙어 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

공명부귀(功名富貴)를 뜻 밖에 잊었으니

➡ 공명과 부귀에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 중에 청유(淸幽, 속세와 떨어져 깨끗하고 그윽함)한 흥미(興味)를 혼자 좋아하노라

➡ 화자는 산수간에 누리는 '청유한 흥미'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지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 2수

조그만 이내 몸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다.] 천지간(天地間)에 혼자 있어

➡ 화자는 번거로운 세속적 인연을 멀리하고 소박하고 단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청풍명월(淸風明月)을 벗 삼아 누웠으니

➡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같은 자연을 벗 삼아 한가로이 지내고 있다는 말이다.

세상(世上)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나는 몰라 하노라

➡ 화자는 세상의 부질없는 다툼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는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제 3수

세상의 버린 몸이 하올 일이 전혀 없어

➡ '세상의 버린 몸'이라는 말에서 작가의 실제 삶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참고 작가는 만년에 몇 달 관직 생활을 한 것 외에는 평생 관직과 무관하게 살았다.

일장 현금(一張玄琴, 한 개의 거문고)을 자연히 흩어 타니

➡ '일장 현금'은 자연 속에서 화자가 누리는 한가로움을 의미한다.

아마도 자기(子期, 중국 춘추 시대에 거문고의 대가인 유백아의 연주를 제대로 이해한 유일한 벗이었다는 종자기) 죽은 후에 지음(知音, 음악의 곡조를 잘 알아들음)할 이 없어 하노라

➡ '세상의 버린 몸'이 된 자신의 처지가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는 현실과 무관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하지 않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백아의 지음이었던 종자기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다. 거문고를 타면서 화자는 자신에게도 종자기처럼 자신의 음악을, 나아가 삶을 알아주는 벗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제 4수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렸을새

➡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표현이 〈제3수〉의 초장에 이어 다시 나온다. 자신이 재능이나 포부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마음껏 펼치지 못한다는 불우(不遇)의 의식이 드러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작가의 은거는 때를 만나지 못한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겠다.

조그만 초당(草堂, 억새나 짚 따위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채)을 시내 위에 이뤄 두고

➡ 초당은 상투적으로 은자의 거처로 쓰이는 표현인데,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상징한다.

목전(目前)에 보이는 송죽(松竹, 소나무와 대나무)이 내 벗인가 하노라

➡ 〈제2수〉의 '청풍'과 '명월'에 이어 '송죽'이 벗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자연에서 '혼자' 지내는 화자를 위안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제 5수

산림(山林)에 든 지 오래니 세상사(世上事)를 모르노라

➡ 세상사를 모른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혼탁한 세속과 거리를 둔 채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는 자부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십 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 세속의 어지러움이 극심하다는 의미이다. 즉, 은거지와 세속 사이가 멀리 떨어져 단절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 '홍진'은 원래 말이나 수레가 일으키는 먼지를 말하는데, '십 장 홍진'은 그 먼지가 10장[→ 어른 키의 10배] 높이로 두껍게 쌓여 있다는 뜻이다.

물외(物外, 세상의 바깥)에 뛰어든 몸이 보은(報恩)[→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어려워라

➡ 화자는 자신이 '물외', 곧 자연에 은거한 지 오래인 까닭에 임금에게 보답할 길이 없다고 말한다. 종장을 통해 화자는 자신 또한 임금을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다시 환기하고 있는 셈이다.

[27~30] 현대시

(가) 「깨우침」 유치환

작품 평가

예전에는 다듬이 소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겹고 흔한 생활 소리였다. 화자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리에서 출발해 우주와 생명의 근원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시에 표현된 모습들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읽어 보면 더 좋겠다.

깊은 잠결의 어느 겨를에 생겼음인지 한결같이 울려오는 낭랑한 먼 다듬이 소리는 한 홰 두 홰 간곡히 외치는 닭 울음소리로 더불어 겨우 짐작할 수 있는 새벽의 가차워(= 가까워) 옴에 따라 점점 맑아질 따름이었다.

➡ 화자는 깊은 밤 들려오는 낭랑한 다듬이 소리를 의식하고 있다. 닭이 울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인데, 다듬이 소리는 점점 맑게 들리고 있다.

열사흘 달은 어느덧 서쪽 대밭 위에 기울고[→ 달이 서쪽으로 지려는 시각, 새벽이 가까운 때다.] 마을은 집집이 지닌 한량없이 아늑한 제 그늘에 가리어 누리는 늘어진 안식[→ 어둠 속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도 이미 몇 고비를 무르익은 무렵 차라리 먼 암자의 인경(= 절에서 시각을 정해 놓고 치는 종) 소리는 겨을한(= 집중이 흐트러진) 중의 선하품과 시금한(= 시린) 눈시울의 여운을 늘어뜨려 오건만 어느 마을 방 어둑한 등잔 아래 초롱초롱 맑은 눈매와 단정한 앉음새로 홀로 일어 깨우치는 이 여인의 다듬이 소리[→ 만물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명력을 일깨우는 소리]는 물 같은 밤 고요의 온갖에 울림하여 남김 없는 그 대기(大氣)의 무늬는 드디어 깊이 잠든 먼 별들까지 즐거운 선율로 눈뜨이고 다시 몇 억만 광년을 인과 불멸(因果不滅)의 법칙과도 같이 무궁으로 무궁으로 번지어 갈지니.

➡ 밤이 깊어 새벽으로 가는 시각, 어둠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잠이 들어 있고 먼 암자의 승려마저 졸고 있는 고요하고 느긋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듬이 소리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어느 마을 방에서 '맑은 눈매'와 '단정한 앉음새'를 갖춘 '여인'이 '홀로' 일어나 앉아서 다듬이질을 하고 있다. 잠에 빠진 마을이나 먼 암자의 졸음 가득한 분위기와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화자는 낭랑하고 한결같은 다듬이 소리에서,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 사람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안온함을 좇아 잠에 들게 하는 깊은 밤을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본다면, 그 속에서 홀로 깨어 다듬이질을 하는 여인의 모습은 그 부정적 현실에 굴하지 않는 꿋꿋하고 고결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깨우치는' 다듬이 소리라고 표현한 듯하다.

➡ 여인의 다듬이 소리가 '몇 억만 광년'을 '인과 불멸'의 법칙처럼 퍼져 나갈 것이라고 한 것에서,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잠에서 벗어나 생명력을 회복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저 먼 동방의 항가새(= 자주색 꽃을 피우는 풀인 엉겅퀴를 이르는 말) 꽃빛 새벽을 부르며 부르며—.

➡ 여인의 다듬이 소리가 먼 동쪽에서부터 밝아 오는 새벽을 부르며 울려 퍼진다. 새벽은 '항가새 꽃빛'으로 아름다운, 긍정적인 모습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 새벽을 부른다는 것은 다듬이 소리가 새벽에 대한 기다림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도, 다듬이 소리로 인해 새벽이 온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다듬이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에 자주색 새벽하늘의 색채 이미지가 더해지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